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7, 사무엘 하 22-23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27회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 22장; 다윗의 마지막 말(시 23:1-7)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두 편의 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51절의 긴 시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제목대로 여호와께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특별한 시에서 주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사무엘하 22장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종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하셨고, 다윗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은유가 시의 시작 부분과 중간, 그리고 시의 끝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돌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손을 뻗어 누군가에게 집어 던질 수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까? 나는 더 큰 바위를 장애물이나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인 히브리어 수르(sur)는 바위가 많은 절벽, 바위가 많은 지형을 가리킨다.

우리는 다윗의 경력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가 자주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이러한 지형으로 올라가 피난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바위 지형으로 올라갈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적들이 나를 찾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긴 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윗이 쓴 한 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뛰어 들어 봅시다.

이 시의 서문에서 다윗은 주님을 그의 구원자요 보호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2절과 3절에서 그는 9가지 비유를 사용할 것인데, 그 비유들은 모두 주님을 보호자이자 구원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그것은 이상한 비유이지만, 그는 여기서 아마도 황소 뿔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야생 황소와 싸우는 것입니다. 뿔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이고 뿔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분은 나가셔서 들소처럼 내 원수들을 공격하시고 나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목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보호자, 성채, 피난처, 반석, 요새, 구원, 구출, 구원으로 가리키는 은유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도 나타납니다.

당신은 폭력적인 사람들로 부터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셨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그가 많은 적들과 맞섰을 때 그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 그가 주님을 찬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의 적들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사울과 같은 적들이 있었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마주해야 했던 외국의 적들도 많았습니다. 시편의 첫 부분인 5절부터 20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의 공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전쟁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투를 위해 활력을 주시고, 말하자면 전쟁을 위해 그의 손을 훈련시키고,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셨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임무를 위한 신의 거의 특별한 무기인 무기.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손을 맞대고 싸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의 첫 번째 부분에서 David는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익사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망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휘몰아쳤다고 했습니다. 파괴의 급류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익사할 수 있는 급증하는 물에 비유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물들에 갇혔느니라. 나는 말하자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내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겪었던 문자 그대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파도와 파괴의 급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무덤의 줄이 나를 감쌌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올무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희생자를 가두기 위해 줄과 올가미, 밧줄을 사용하는 사냥꾼으로서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올가미와 밧줄로 나를 가두는 것처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 번 곤경에 처했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때를 되돌아보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기억한 다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David가 여기서 할 일입니다. 나는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하늘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구름과 하늘을 통해 그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 위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께 개입과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시적 신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적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이다. 우리가 아는 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구름을 뚫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런 경험은 결코 없었습니다. 데이빗, 정말 시적이네요.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에서 그것은 신현입니다. 그는 다윗을 구출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얻으십시오.

다윗은 죽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여기 주님이 오십니다.

8절, 땅이 진동하고 진동했습니다. 산이 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입에서는 소멸하는 불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불타는 석탄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현으로 불과 연기를 내쉬며 오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발 밑에는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룹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따라서 이 날개 달린 반인반동물 유형의 창조물 중 하나인 주님은 그 중 하나를 빠르게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 올랐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자신의 주위로 덮으셨습니다. 하늘의 검은 비구름이 그분의 임재의 광채로 인해 번개처럼 번쩍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폭풍 가운데 오십니다. 나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도 논쟁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 찾아올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폭풍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살을 쏘아 적을 흠어 버렸다.

그는 엄청난 번개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그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바다 골짜기가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물에 갇혔습니다.

주님은 적에 맞서는 강력한 전사로서 천둥소리와 번개를 던지는 강력한 신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래로 손을 뻗을 것입니다. 17절, 그가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니

그분은 나를 깊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나는 강력한 전사이고 누구도 나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골리앗이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장에 나설 때 자신의 취약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항상 자신을 위해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전쟁 중에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마치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을 통해 내려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이 나에게 맞섰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림은 데이빗이 익사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이 그의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는 가라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물을 폭파하시고 다윗을 끌어내어 안전하고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의 머리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모든 적들에 맞서 겪었던 경험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만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내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지켰고 나의 하나님을 배반할 죄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법이 내 앞에 있다. 나는 그분의 율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죄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의로움에 따라, 그분이 보시기에 내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치 그가 주님의 율법을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지켰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위험 신호를 제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그는 간음과 살인을 포함하여 십계명 중 네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글을 썼음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제목에 따르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적들에게서 구원하신 후 다윗의 경력이 끝날 무렵에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완전함과 주님의 성약의 요구에 확고한 충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 실패와 결점을 고려할 때, 그는 여기서 절대적 의미에서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쓴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죄성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좀 더 일반적인 종류의 구절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는 때때로 검은색이거나 흰색이 나옵니다. 회색이 별로 없군요 .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인 악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주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자신을 일종의 적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의로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졌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죄, 즉 큰 죄를 단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나는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편에 있었습니다.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전 선지자들을 거쳐 열왕기의 책에 기록될 때 주님께서 다윗을 주님의 의롭고 신실한 추종자의 모범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왕들의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이후의 왕들은 그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주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은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 사무엘서를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는 다윗의 경력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뒤에 두기로 선택하시고, 다윗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집중하고 모범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구절에서는 그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그 사람에 대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항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때때로 권력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우상 숭배자로 묘사되는 이야기의 한 장면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다윗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셨고, 내 생각엔 그것이 다윗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실 것이라면 결국 다윗 자신은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겠는가? 그는 내가 그분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편이었다. 나는 그에게 충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인 척 스윈돌(Chuck Swindoll) 설교자로 잘 알려진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에 비유합니다.

아니면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척 스윈돌은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주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롭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름을 입력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어떤 끔찍한 개인, 아시다시피 아돌프 히틀러나 그와 유사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예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척 스윈돌이나 빌리 그레함은 이 사람에 비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올 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척 스윈돌(Chuck Swindoll)과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은 자신들이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시편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악한 사람과 달리 빌리 그레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주님 편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적들과는 반대로 주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전쟁과 싸움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편에 섰고 여호와께 신실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조금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나아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자, 마녀, 옷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에드먼드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얀 마녀와 동거하여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얀 마녀는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slan이 개입하여 Edmund에게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slan이 형에게 꽤 화가 난 형과 자매들에게 Edmund를 데려왔을 때 Aslan은 Edmund를 그냥 넘겨주고 여기 네 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아슬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교훈을 얻었으며 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서 열왕기서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다윗은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의 공의에 대해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충실한 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충실함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자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흠 없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는 여기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 당신은 자신의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순결하신 자이심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고 반응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기를 힘쓰면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격려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NIV는 27절 하반절을 번역하고 있으나 패역한 자에게는 주의 지혜를 나타내시나이다.

최고의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뚤어진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비뚤어진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봅니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열왕기상 22장, 악한 왕 아합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여호와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아합에게 말하니라. 그래,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것이다.

Ahab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요. 당신은 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때 속임수에 연루된 미가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국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 공회에서 누가 나가서 아합을 속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속임수의 하나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선지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전체 의제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합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아합이 미가야에게서 진실을 강요하면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관해 읽을 때, 주님께서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영향력을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철학과 계획에 내맡기시는 속임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속임수의 우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가인 JA Alexander는 이 구절에 대해 말했듯이, 그 자체로나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비뚤어진 동일한 진행 과정이 죄인을 향하여 추구될 때 단순한 옹호적인 정의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임수가 죄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에서 속임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벽을 오를 수 있습니다.

번역이 좀 툐다운된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실제로 뛰어오르다 또는 뛰어오르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전투를 위해 활력을 주시고 그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피신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흠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상황, 즉 전쟁의 상황에서, 나는 다윗이 전투에 앞서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의 신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사울이 올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 사람에게 넘겨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올 것이요 또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데이빗은 떠난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적과 마주하여 주님께 간구한 다른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투 전에 주님께 가서 여쭙어 볼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다고 말하면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희는 그것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님의 비할 데 없음. 그리고 그는 전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그분은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십니다. 데이비드, 높은 지형에서 달리는 사슴을 본 적이 있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그 동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넘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바위 위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vid는 그것이 제가 전장에서 느꼈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병전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발목을 빼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넘어질 것이고, 취약해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David는 기본적으로 아니요, 제가 전장에 있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있었고 이 사슴 중 하나의 민첩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투를 위해 내 손을 훈련시키십니다. 내 팔은 청동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다윗에게 그의 무기 사용법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고대 근동 예술, 특히 이집트의 일부 미술에서 파라오의 신 중 하나가 활 사용법과 무기 사용법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고 그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저축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풀리지 않도록 내 발에 넓은 길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원수들을 뒤쫓아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적들이 어떻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분명 다윗의 원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는 때때로 패배한 적이 승리자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므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매우 폭력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먼지처럼 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두드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민족들의 모든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여 열방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전에는 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 내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는 알았어도 권위가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나에게 대하여 듣고 그들은 울. 그리고 내 주제가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은 떨면서 내 앞에 온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님과 그분이 주시는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를 '주님은 살아 계시다'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실용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고 건강하십니다. 내 바위를 찬양하라.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 주소서.

그는 나의 원수를 갚으시고 열방을 내 아래 두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를 내 원수보다 높이셨습니다. 당신은 폭력적인 남자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이 와서 조공을 가져오면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는 그의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시되,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주님의 능력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시는 매우 짧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와 선택을 받은 것이며,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언약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영감이 말함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높임을 받은 사람 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말함이요 이스라엘의 노래의 영웅이니라

다윗은 주의 영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에게 많은 성경과 시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내 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원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요 참 지혜의 출발점이니라 구약의 지혜문학.

그는 구름 없는 아침, 돋는 아침 빛 같고, 땅에서 풀이 돋아나는 비 후의 빛 같으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상적인 왕을 묘사하기 위해 다시 은유, 즉 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새벽의 밝은 빛과 비 뒤에 오는 햇빛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빛과 광채는 여기서 신성한 구원, 새로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왕을 묘사하고 있으며, 내 생각에 그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과 구원과 안전을 제공하시는 왕으로서 그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녕 나와 각 부분에 마련하고 견고케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나의 구원을 이루시지도,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맨 처음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프로그램에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매 그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이상적인 왕을 적, 악한 사람들과 대조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 손으로 모으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이 내어버리느니라. 가시를 만지는 사람은 철 연장이나 창자루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누워 있는 곳에서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여기서 마지막 말로 자신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그것이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게도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 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대문자 s(아들)로 오실 의로운 통치자, 절대적으로 의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시편 2편에서 알 수 있듯이 열국을 다스리는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의 경험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메시아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음 과에서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서 사무엘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27회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 22장; 다윗의 마지막 말(시 23:1-7)